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인문학적 치유 방안의 가능성 -구술 치유 방법론을 중심으로-*

김중근**,박재인***,남경우****,곽아람*****,풍영순*****

- | | |
|----------------------|-----------------------------------|
| I. 서론 | IV.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구술 치유
방법론의 가능성 |
| II. 탈북민을 위한 치유 방안 현황 | V. 결론 |
| III. 탈북 트라우마 관점의 필요성 | |

국 문 초 록

이 글은 탈북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각성을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삼고, 그 치유 방안에 대한 인문학적 모색을 시도하였다. 탈북민 치유 지원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심리상담 기법이나 심리안정 목적의 활동들이 다수였는데, 그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본고는 남북분단 상황의 특수성으로 가중되는 상처를 포함한 개념의 탈북 트라우마를 논하고, 그들에 대한 치유의 지원은 탈북 트라우마에 초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 트라우마는 남북분단 상황에서의 탈북민 존재에 대한 사유와 함께, ‘북한에서의 삶 - 탈북 과정 - 한국살이의 고충’ 등 그들의 인생살이에 주목한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념의 탈북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주체적 말하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술 치유’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통합서사적 가치가 있는 발언들을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이들의 증언에 공감하고, 그들의 삶이 공공의 기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탈북민의 정신건강, 탈북 트라우마, 분단 트라우마, 구술의 치유효과, 북한에서 살아온 이야기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8)

** 제1저자: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논문 및 저서 2017. “탈북청소년 구술에 나타난 엄마의 해체와 자기치유적 말하기.” 『문학치료연구』 44집. 외 다수.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공동저자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원, 공동저자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원, 공동저자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원, 공동저자

I. 서론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누적 3만 명에 달한다. 탈북민의 수가 늘어갈수록 이들의 삶이 어떤 상태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201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¹⁾에 따르면 탈북민 63.1%가 남한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생활은 일반국민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재입북·위장망명·범죄 등 다양한 부적응 사례도 공존하는 것(통일부, 2017: 13)이 사실이다.

탈북민의 한국생활 부적응은 이들의 정신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탈북민의 경우는 북한에서 탈출을 준비하는 기간과 탈출 과정, 그리고 한국살이 적응 등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²⁾ 게다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 현재적 불행이 과거의 고통과 결부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또 그것이 한국생활에 적응해갈 힘을 앗아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즉 탈북민의 부적응과 정신건강 문제는 상호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탈북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탈북민을 위한 지원 방안은 다양하게 마련되어왔다. 한국정부는 초기정착 지원은 물론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 및 장학금 지원 등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들

1) 이 조사는 남북하나재단 주관으로 2016년 6월부터 3개월 간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1997~2015년 입국한 만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11,9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2) 2016년 조사 결과 1년 간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탈북민의 비율이 17.4%에 이르는데, 그 중에는 비교적 남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응답 비율이 높았다(1~3년 미만 11.8%, 3~5년 미만 17.0%, 5~10년 미만 17.6%, 10년 이상 18.5%). 이는 한국살이의 고통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드러내는 결과다(남북하나재단, 2017: 431).

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입국 당시와, 그 이후로도 심리전문가를 통한 개인상담 및 집단치료, 정서 안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탈북민에 대한 임상학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기존 심리학 분야에서 행해지던 이상심리 진단과 상담치료 및 각종 예술치료 등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탈북민 치유책이 증대함에 따라 그 한계점에 대한 논의들이 뒤따랐다. 대다수의 치유 방안들이 탈북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우종민, 2014)가 있다고 지적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탈북민의 이픔은 현대 정신의학과 관련한 학문의 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진단한 경우도 있었으며(안현의, 2011), 이들의 실제적 문제는 정신병과적 아픔이 아닌 탈북과 적응의 삶 그 자체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 점에 주목한 치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박재인, 2016)도 있었다.

생사를 위협하는 탈북과정은 물론이며, 특히 체제 반대편에서 건너 온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감 역시도 이들의 상처를 구성하는 요인이다.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들은 오래전부터 탈북민들의 적응과정이나 고통, 즉 탈북민들의 한국살이 문제를 중요한 변인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상심리 진단이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으로 분단체제에서의 ‘탈북민’의 존재에 대한 신중한 고찰이나 적극적인 개선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변화 없이 탈북민 개인에 대한 심리치료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지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탈북민의 실제적 문제에 적실한 치유 방안으로서 사람의 삶을 사유하고 탐구하는 인문학적 치유 방법론을 논하고자 한다. 탈북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의 치유 방안은 이미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되었다. 인문치료의 언어 교정에 관한 연구나, 문학치료학 연구도

시도된 바 있다(강미정, 2014; 나지영, 2011, 2012; 박상옥·최늘샘, 2011; 박재인, 2013, 2014, 2015; 정성미, 2015). 그 가운데 이 연구는 특별히 ‘구술 치유’(김종군, 2013)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가능성을 논하려고 한다. 구술 치유는 여타 인문학적 치유 방법론에 비하여 탈북민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실체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유용한 치유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은 구술의 치유적 효과를 가늠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구체적인 치유 방법론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토대 작업으로 먼저 다양한 치유 방안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간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경로와 맞닿아 있는 인문학적 개념인 ‘탈북 트라우마’ 관점의 필요성을 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탈북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서 구술 치유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 치유 프로그램을 구안하고자 한다.

II. 탈북민을 위한 치유 방안의 현황

지금까지 실행되어온 탈북민 정신건강 관련 지원책을 검토하면 크게 두 방향의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입국초기의 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 정착과정에서의 지원이다.

입국초기의 지원 정책은 주로 하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탈북과 입국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와 심리 상담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통일부, 2017: 15). 이후 지역 정착과정에서의 지원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자체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등과 연계하여 시행된다. 하나원 퇴소 후 탈북민은 거주지 편입 이후 1년 이내에 지역적응센터의 ‘초기집중교육’을 받게 된다. 이때 심리정서에 대한 집단 상담이 의무적으로 4시간 수행된다(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7: 50).

또 다른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책은 지역의료기관의 의료지원 중 심리정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하나센터에 파견하거나 탈북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전문상담사’ 제도가 있으며 이들은 탈북민의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분야에서 종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착도우미’는 탈북민의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제도로 주거 정착뿐만 아니라 심리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돕고 있다(통일부, 2017: 127-129).

이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심리안정프로그램, 종합상담센터, 24시간콜센터, 취업상담실 지원과 여성가족부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전문상담, 보건복지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우울, 불안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와 방문건강사업이 지원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원 방안과 교육 절차에도 불구하고 최근 탈북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자,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통일부는 이들의 정착에 대한 최우선 과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선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오랫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비했기 때문에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선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4년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문상담사 제도를 활용하여 정신건강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다. 2017년 현재 각 부처에서 지원

하고 있는 탈북민 치유 프로그램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탈북민 치유 프로그램

	통일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기관	탈북민의 정서적,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립동기 부여 교육 실시	탈북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탈주민 지원	여성 정책 및 여성 증진, 이주, 이민 등의 인의 보호, 화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인적 자원 개발 정책, 평생교육, 평생교육 관련 관장
여성 프로그램	<p><탈북민산림 치유 프로그램></p> <p>숲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p>	<p><휴(休) 프로그램></p> <p>의료 전문 기관 및 지역 센터 협력하여 심리 상담 치료</p>	<p><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p> <p>북한이탈여성들의 상담 및 심리 상담 전문 상담과 집단 상담</p>	<p><마음톡톡 프로그램></p> <p>무용·동작 치유와 소통 프로그램</p>
	<p><정서안정패키지, 건강한 마음 관리></p> <p>성인탈북민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화법, 인간관계, 스트레스 해소 및 훈련</p>	<p><희망의 두드림></p> <p>합창, 음악극, 리듬, 악기 연주, 치료적 만들기 등으로 치료</p>	<p><이탈여성 상담 심리치유></p> <p>한국 사회 적응을 겪는 탈북 여성을 위한 상담 센터 개소를 하여 1명씩</p>	

		배치하여 진행하는 심리치유 프로그램	
<p><자존감 향상 프로그램></p> <p>청소년 탈북민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p>	<p><탈북청소년 정신건강회복></p> <p>삼성병원 전문의들의 탈북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p>	<p><마음 돌보기, job 돌보기></p> <p>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 치료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p>	
<p><심리·정서안정 교육 프로그램></p> <p>청소년 탈북민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p>	<p><북한체제트라우마(NKST) 체제상 처치료 프로그램></p> <p>한국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의 체제상처인 거짓자기(false self)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p>	<p><다들다들></p> <p>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개별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p>	
<p><인지재활 및 정서관리 프로그램></p> <p>노인 탈북민의 치매예방과 바람직한 심리안정도모를 위한 프로그램</p>			

탈북민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은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졌다. 다수의 부처에서 세부 타깃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전부터 실행되었던 심리상담과 더불어, 정서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현황이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이 꽤 많이 도입되었으며, 청소년·노년층여성 등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최근 먼저 입국한 부모를 따라 탈북한 청소년의 수가 늘어가는 추세에 따른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탈북민 동료들이 치유자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나 북한체제트라우마(NKST)의 치유 프로그램은 특성화된 방안으로, 이전보다는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유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민간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신건강서비스이다.

- 국립중앙의료원의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 : 극심한 우울증, 자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및 자살예방활동
- 국립서울병원의 탈북민 초청 모임 : 진료전문의와 간호사와의 정기적 모임,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제일기획의 탈북민 정신건강 회복 프로젝트 “마음동무” : 삼성서울병원 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참여하여 심리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서울백병원 스트레스연구소의 숲 체험 프로그램 : 힐링강연과 숲 체험 및 미술치유

주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정신건강서비스는 우울증과 자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치료에 집중되어 있다. 더불어 “마음동무”나 숲 체험과 같이 정신적 생명력을 충족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들도 실행한다.

Ⅲ. 탈북 트라우마 관점의 필요성

그간 탈북민에 대한 지원책은 탈북민 인권 보호와 한국살이 적응을 위하여 적극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탈북민 지원책 역시 그 한계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치유 방안에 관련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초기 하나원 교육이 탈북민의 실제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유용하지 못하다는 평가(황서목·원효현, 2017: 186)가 있었다. 그리고 탈북민의 정착 초기는 금전적 지원이 주를 이루며, 보호 결정 이후에는 주거·취업·사회적응에 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탈북민의 의료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탈북민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김지애, 2016: 74-75)는 의견도 있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탈북민 치유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증대에 있다. 탈북민 스스로는 불안 및 우울함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편이었음에도,³⁾ 현재 탈북민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형태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 문제는 2014년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 지원”이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개선되었으며, 더욱 풍부해진 치유 프로그램들로 그 실천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탈북민 치유 프로그램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제는 일반적인 정신의학적 치유 방안에서 더 나아가, 탈북민의 특수성이 반영된 진단과 치유책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의 탈북민 대상의 치유 프로그램들은 대다수 일반적인 심

3) 2014년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담 및 치료를 원하는 탈북민이 52.9%에 달한다고 한다.

리상담 기법이나 심리안정 목적의 활동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상처에 주목하면서 그 이상적 징후에 대해서 자존감 회복, 정서안정과 같은 치유책이 그 대안이 된 것이었다. 이러한 대안은 정신의학/심리학적 관점과 관련된다.

기존에 탈북민에 대한 임상연구에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아픔을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충격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보았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탈북민 연구는 애초에 우울, 불안, 두려움, 죄의식과 같은 PTSD 진단과 사회적응과정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다. 이때에는 “고문, 강제노동, 굶주림, 감시와 잔혹한 폭력행위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 및 죽음 목격, 성폭행, 집단수용소 생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림, 수용소에서의 영양실조, 신체적 상해 및 대량학살, 불법이주 생활로 인한 희생의 위험 등”으로 대표되는 난민으로서의 외상(trauma)에 주목(김현경, 2006: 16-17)해왔다.

이러한 제한적인 기준은 특정 신체적 징후들을 동반하지 않는 상처들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트라우마 경험에 노출된 탈북민들의 상황을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자칫 일반적인 성격장애나 개인의 특성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있다(김종곤, 2014: 210).

그리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탈북민들의 아픔에 대하여 복합적 외상후스트레스장애(C-PTSD)로 보는 관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인지정서행동의미체계 등 인간의 심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증상들, 가령 인간관계의 문제와 일상생활에서의 정서 문제 등을 포괄하기에, 이상심리나 병리적 징후가 아닌 특성에서도 탈북민의 상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이상심리학 견해는 탈북민의 아픔을 복합적인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지만, 그 징후를 관찰할 뿐 근원에 대한 관심과 고찰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한 징

후를 유발하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회구조적인 시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탈북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점차 이들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삶의 경로를 따라가며, 외상의 근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이다.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견해들이 그러 한데, 이러한 연구들은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외상의 양상’과 ‘외상으로 인한 이상심리적 징후’들에 주목했던 이전과 달리, 북한에서의 삶과 남한에서의 삶에 주목하였다.

먼저, 탈북 이전 북한 생활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주목한 논의다. 김종균은 탈북 트라우마 개념을 정의하면서, 먼저 북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굶주림과 폐쇄적인 북 체제의 통제와 억압에서 기인되는 외상을 포함(김종균·정진아, 2012: 120)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혜란은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과 ‘칼 날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한’ 체제노이로제, 즉 김 일가의 조건반사적인 통치행태(공개처형을 비롯한 집단수용, 연좌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로 일관된 ‘감옥’화된 체제적 재앙)로 공포와 불안이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증상으로 ‘북한체제트라우마(NKST)’(유혜란, 2014: 120)를 논하였다. 이로 인한 왜곡된 가치관, 반동형성, 이분법적 사고, 의심, 무기력, 책임 전가, 수치심, 부정직한 태도 등 ‘거짓 자기’와 같은 증상을 치유하는 방안을 목회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안한 바 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관점의 체제상처에서 기인한 트라우마를 치유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탈북민들의 ‘한국살이’에서 경험하는 고충에 대해서 주목한 경우도 있다. 남한 사회의 경계인으로서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김현경·전우택, 2009: 368; 정성미, 2012: 126) 혹은 국내 입국 후 정착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남한 주민과의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김종균·정진아, 2012: 120) 등을 포괄하여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확장된 시선의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서 남한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 낙인, 적과의 동침 상황, 끝나지 않는 빈곤, 용서불가, 그리고 자살의도 등과 같은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 경험(성정현, 2014: 117-131)에 대한 심각성이 주목되면서 탈북 트라우마에서 ‘한국살이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탈북 트라우마는 ① 북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고난과 폐쇄적인 북 체제의 통제와 억압에서 기인되는 외상, ②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유랑과정에서 겪은 모멸과 공포, ③ 국내 입국 후 정착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김종균·정진아, 2012: 120). 이러한 포괄적 개념으로 볼 때, 탈북민들이 살아온 삶의 경로에 따라 외상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함께, 체제 반대편인 남한사회에서의 고충도 함께 아울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탈북민의 살아온 삶 자체에 주목하는 탈북 트라우마 관점은 다양한 삶의 맥락과 경험의 결, 다양한 탈북 동기와 탈북 과정의 경험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변화들에 주목할 수 있게 한다.⁴⁾ 가령 북한에서 삶의 경험이 탈북 동기와 한국 적응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⁵⁾

4) 조정아는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및 이주 과정의 경험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고, 그간 탈북민 ‘적응’연구들에서 이 점을 중요한 요소로 담아 내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조정아 외, 2014: 4). 최근 한국 입국자 수가 증대한 탈북청소년에 주목하여, 이들이 남한으로 이주 후 여러 겹의 생애 경험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5) 가령 탈북민의 탈북 동기 가운데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노동이동’과 같은 경우, 북한근로자로서의 집단노동참여유형과 개인이익추구유형 등 그 북한에서의 노동 경험의 차이가 탈북 동기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집단노동참여유형은 당국의 감시 및 신변 불안 등이며, 개인이익추구유형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탈북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난다(김화순, 2017: 235).

탈북민의 세대별로도 탈북 과정과 이주 동기가 급속도로 변화하기도 한다. 가령 고난의 행군 시기의 생계형 탈북과 먼저 탈북한 가족의 지원으로 이주해온 구조형이나 이주형 탈북은 명확히 구분되며, 그 삶의 모습이나 탈북 상처의 경험도 다른 모습이다.⁶⁾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 탈북에 해당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기준으로 현재의 2·3세대 탈북 트라우마를 점검하기는 어렵다. 현재에도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할 수 있으면서도, 상처의 내용들을 시시각각 포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탈북 이전-탈북 과정-탈북 이후’의 삶 자체에 주목하는 탈북 트라우마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탈북민의 상처를 고려할 때, 개인적 트라우마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난민/이주민과 구분되는 탈북자라는 특수성을 놓치지 않는 개념(김중근, 2014: 205-228)으로서의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기아와 공포, 신체적 폭행 등 충격적인 경험에 더하여, 한반도의 분단 상황으로 인한 ‘탈북’의 의미로 가중되는 문제를 말한다. ‘탈북’의 의미로 가중되는 문제는 한반도의 분단 역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상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같은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성격을 지닌다.

탈북민의 상처에서 인간 공통으로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징후들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모든 인류가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기인된 상처를 머리와 몸에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를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코리언의 근현대 역사에서 비롯한 탈북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념의 트라우마 논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외하고 논의하기 어렵다.

첫째, 탈북민으로서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는 ‘민족적 동일성

6) 여기에서 말한 생계형·구조형·이주형 탈북이라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탈북트라우마의 양상을 정리한 김중근의 논의에 따른 것이다(김중근, 2017).

욕망의 좌절'이다. 북한을 떠난 탈북민이 정착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대한민국을 고려하는 까닭은 이곳은 자유의 땅이자, 우리 민족의 땅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우리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물질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반면 생활 곳곳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무관심, 차별은 그들의 기대감을 무색하게 할 정도이다.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의 60%가 차별과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우월감으로 무시하는 태도, 편견,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 등이 있었다(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012: 156-157).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라는 기대감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그 기대감의 크기만큼 깊은 상처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탈북민이 한국입국 후 정부 혹은 남한주민으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의 상처는 단순히 이방인으로서 받는 상처와는 다르다. 김종근은 이를 두고 시민으로서의 동일성을 포함하여, 상상적 공동체로서의 '민족적 동일성'에 대한 욕망이 좌절되는 충격이라고 하였다(김종근, 2014: 211).

민족적 동일성의 욕망은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근원에 자리한 핵심이다. 식민으로부터 시작된 아픈 역사는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졌고, 비극의 반복 속에서 한민족이 근대국가의 주인으로 건재할 수 있는 소망은 매번 좌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의 과제를 사람 중심으로 사유하는 통일인문학에서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분단의 역사를 민족과 국가가 일치되지 않는 욕망의 좌절이 지속된 아픔으로 본다(김성민, 2010: 451-470). 근대국가의 틀 안에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욕망은 분단의 대립과 전쟁으로 표출되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읊으면서도 서로를 향해 총과 칼을 겨누고 있는 남북관계의 특성에도 반영되어 있다.

민족 동일성 욕망은 동포애나 형제애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탈북민의 경우는 예외다. 탈북민은 북한을 떠나오면서 남한주민을 향해 같은 민족의 따스한 포용력을 기대했겠지만, 남한주민은 이들을 마주하며 경제적 부담감이나 북한정권에 대한 거부감을 떠올리기도 한다. 결국 분단의 상황과 민족 동일성이 상충되는 상황 속에서 욕망은 좌절되고, 그 안에서 탈북민은 불편하고 거북한 대상으로 추락하는 상처까지 감당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닌, ‘탈북’이라는 단어에 따라붙은 의미들까지 감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대감과 정반대의 예상치 못한 모멸감이라는 점이 그들의 아픔을 심화시킨다.

둘째, ‘탈북’의 의미가 가중하는 상처로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문제’다. 이는 바로 ‘북(北)’과 관련한 것에 대한 불편함 내지 적대감을 느끼는 한국사회의 정서적인 습관에서 기인한다. 가령 북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증오하고, 자신과 다른 가치와 사상들을 ‘중북’이라 일컬으며 미워하는 왜곡된 분노가 그러하다(박영균, 2015: 5). 분단 트라우마는 이미 우리의 삶 곳곳에도 침투하였고, 북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일들은 빈번히 일어난다. 그 안에서 탈북민은 적대감의 표적이 된다.

2016년 3월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공개한 ‘2015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20.8%의 탈북민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정보를 전한 기사에는 날카로운 비판이 댓글로 달렸다. 간첩, 기회주의자, 거지 등 모욕적인 표현이 난무하였다(동아일보, 2016/03/02).

과거 십여 년 전에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에 한 탈북민이 직접 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 글은 인상 깊은 사연이 되어 여러 탈북민 커뮤니티에 전해지기도 하였다.⁷⁾

언젠가는 어느 모 단체에서 탈북자들에게 “이제라도 북에 가고 싶은가?”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탈북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의 속마음을 말했다.

“모두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데 그 모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더 충격적이다.

그들은 “탈북자들 거의 모두가 남한정부가 싫어서, 이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져서, 정착을 하지 못해서, 다시 북으로 가고 싶다.” 한다고 선포해 버렸다.

<중략>

북한의 김정일 줄개들은 “보라! 남조선으로 도망쳐갔던 자들 모두가 사람 못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가 어려워 장군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정치선전 떠들고, 남한 사람들은 탈북자들 모두를 “배은망덕하고 한심한 인간들”로 매도하며 뒤에서 쉬쉬 했다.

언론들은 왜서인지 타향살이의 설움을 가슴속 한구석에 항상 묻고 살아가는 탈북자들을 다시 한 번 또 울렸던 것이다.

<중략>

우리는 고향의 아름답고 깨끗한 하늘과 땅, 그리고 정든 사람들이 그리울 뿐이지, 너희들의 그 반인민적인 독재와, 무서운 굶주림, 감시, 처형, 지루한 생활충화, 이상화 학습, 거짓말 선전은 영원히 싫다. 그것이 싫어서 눈물을 뿌리며 고향을 떠난 우리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고향땅에는 그것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 글을 쓴 김00씨는 이 글의 말미에 재입북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 7) 2007년 탈북민 김○○씨의 이름으로 작성된 글인데, 이 글은 탈북민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게시되어 있다. 이 글은 ‘탈북자 동지회’라는 사단법인 단체의 사이트에 탈북자 수기 게시판과 더불어, 탈북민이 주관하는 각종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및 개인 블로그에서 게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탈북민 수필이다.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http://www.nodong.org/share/7171264>)의 자유게시판에도 업로드 되어 있어 그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탈북민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글이기에 여러 인터넷 공간에서 인용되고,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굶주림과 감시 등 북한체제에 대한 반감을 표명하며, 그것이 고향땅에 대한 그리움과는 구별된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가?”의 질문은 자체적으로 모순을 지닌다. 이 질문에는 탈북민들에게 북한이 태어나고 유년시절을 보낸 곳,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고향’이라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 질문을 둘러싼 논쟁에서 탈북민의 북한 지향성을 ‘재입북’ 의사라고 속단한 오류가 존재한다. 이 질문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묻는 것일 수 있다는 판단은 탈북민들에게만 해당되었지, 이들에게 질문하는 ‘주체’인 남한 사회와 주민들은 남한을 버리고 북한체제로 소속될 것이냐는 정치이념적인 질문이었을 뿐이다. 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박힌 편 가르기 논리와 ‘북(北)’ 대한 적대감을 대변하며, 또한 그러한 의식이 사고와 판단의 지평을 얼마나 협소하게 만드는지를 확인하게 한다(박재인, 2017: 51-53).

통일인문학에서 이를 두고 분단 트라우마라고 진단한다. 이는 “서로에 대한 증오와 적대의 사회심리로, 어느 한 쪽의 가치가 절대적 기준이 되어 다른 한 쪽을 용납하지 않고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게 한다. 그러한 정서가 무의식된 결과, 진실과 거리가 먼 가공된 사실 및 인식의 왜곡이 이 사회에 쉽게 먹혀들어, 북한 문제가 거론되기만 하면 정서적 불협화음과 혐오감을 느끼는 심리적 경험이 일상화되었다”(이병수, 2011: 51-56).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인간 본연의 정서이지만, 북(北)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적대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 속에서는 불순한 것으로 치부된 것이다. 적대감의 시선으로는 흑백논리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북과 가까워 보이는 것은 ‘배신’이나 ‘간첩’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탈북민을 구별 짓고 낙인찍는 “차별적 시선과 배제의 문화 속에서는 정치적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 능력·외모·인지능력 등 수 많은 배제와 차별의 선”(조정아 외, 2014: 329)들이 존재한다. 한국사회 속에 무수하게 그어진 배제와 차별의 선 상에서 탈북민들은 위축된 모습으로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민이 자유롭게 고향에 대한 애착, 즉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울 뿐더러 일상의 여러 방면에서 이들의 ‘주체적 말하기’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⁸⁾ 한 탈북민은 한국사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곳에 대한 기억은 끔찍하지만, 자신이 탈북민인지 한국인인지 모를 것이 아니냐며 남한주민의 ‘경계 짓기’에 고통스러운 숙내를 털어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탈북민들은 자신의 출신을 숨기거나, 차라리 조선족이라고 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한 남한 땅에 살아가는 ‘탈북’민들은 존재의 일부를 부정당하는 외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탈북민들의 죄의식 문제다. 이들이 떠나온 공간인 북녘과 남한사회는 철저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남한 이주는 특별한 죄의식을 동반한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혼자 떠나왔다는 죄의식은 남한생활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극받는 문제다. 탈북민들은 북한의 가족들에게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하며, 최근 일어난 몇 명의 재입북 사태 역시 그러한 배경에서 야기된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남한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도 북의 가족 부양에 고단한 삶을

8) 한국주민들이 여전히 이들을 북과 동일시하면서 타자화한다면 거세 공포를 지니고 있는 탈북자는 주체적으로 ‘말하기(Logos)’를 시도할 수 없게 된다(김종곤, 2014: 227).

이어가는 탈북민이 많다. 목돈을 마련하면 북의 가족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현재에는 탈북비용이 1인당 1천만 원을 넘는다고 하여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설사 많은 자금을 들여 북에서 탈출시켜 남한에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살이 적응까지 이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탈북민은 “남북관계의 경계에서 거세 공포를 지닌 존재로서 강박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더 강력한 방식으로 조선을 악마화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가족과 고향을 등졌다는 죄의식을 은폐하기 위해 그 모든 책임을 북한사회로 책임 전가하는 사디즘적 표출을 행하게 된다. 이는 오히려 한국사회의 적응을 돕기보다는 한국사회에서 연대성도 만들지 못하고 불안감만 조성하는 역기능을 발휘한다”(김종곤, 2014: 205-228). ‘북한체제트라우마’(NKST)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징후로 제기된 (왜곡된 가치관, 반동형성, 이분법적 사고, 의심, 무기력, 책임 전가, 수치심, 부정직한 태도 등의) ‘거짓 자기’와 같은 증상은 북한체제의 외상으로 인한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남북의 증오와 적대적 관계에서 비롯된 사항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탈북’의 의미가 지닌 문제들은 난민이나 이주자가 경험한 것과 구별되면서도, 한반도의 분단 상황, 즉 남북의 적대적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는 분단된 조국, 체제 반대편에서 건너온 존재이기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의 동포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탈북민의 특성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탈북민의 상처는 이상심리나 빅트라우마, 혹은 난민 트라우마의 개념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 한반도의 분단 역사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며,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지속된 역사적 트라우마이며 집단적 성격을 아픔으로 바라보

아야 한다.⁹⁾ 우리가 살아온 역사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들의 존재를 살펴보며, 그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분단체제 속에서 ‘탈북’이라는 의미가 가중하는 문제들을 포함하여, 탈북민의 ‘북한에서의 삶 - 탈북 과정 - 한국살이의 고충’을 전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개념으로서 탈북 트라우마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함을 제안한다.

IV.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구술 치유 방법론의 가능성

역사적 트라우마는 대체로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 혹은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성된 피아가 구분되는 갈등 상황에 기인한다.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 혹은 관련자들은 스스로를 ‘아(我)’로 칭하는 대상 혹은 국가로부터 받은 고통과 피해,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또 다른 모습을 말할 수 없었다. 역사적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은 대체로 그러한 발언들

9) 일반 트라우마와 달리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집단적인 형태를 띠며,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그러한 상처를 경험한 사회구조에 살아가는 후세대에게도 전이된다는 치명적인 특징이 있다. 예컨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않은 후세대 역시 청산되지 못한 과거 역사에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며, 일본문화를 선호하면서도 특별한 반감을 품는 묘한 감정에 휘말린다. 또한 식민지 때 강제적으로나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돌아오지 못한 한민족이 해방 후에도 식민종주국에서 차별과 억압을 당했으며, 현재의 후손들도 제노포비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살아가며 입은 상처가 근원이 될 수 있다. 이에 통일인문학에서는 한국인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4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 왔다. 한국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근원인 식민 트라우마를 비롯하여, 이산 트라우마(남과 북의 주민, 해외 디아스포라), 분단 트라우마(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 및 한국사회 내부 분열), 그리고 2만 명이 넘어서는 탈북민에게 발견되는 탈북 트라우마가 그것이다.

이 본인 신변의 안전, 나아가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했다.¹⁰⁾ 때문에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는 말하지 못했던 기억을 ‘말하기’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¹¹⁾

이와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 방안으로 ‘구술 치유’에 주목한다. 구술 치유는 대상자의 삶 전반에 대한 이야기(구술) 속에서 국가나 민족 혹은 집단 차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를 확인하고, 구술 행위에서 비롯한 자기 삶에 대한 이해 과정 및 사회적 담론화를 통해 트라우마의 치유를 꾀하는 방법론이다. 구술 치유는 구술자가 말하는 서사(敍事) 자체에 집중한다는 점, 자신의 상처에 대한 주체적 말하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구술자의 삶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점, 역사적·민족적·집단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등 여타 인문적 치료 방안과는 구별된다.¹²⁾ 이 장에서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구술 치유의 세부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그 치유적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1. 자신의 삶에 대한 기억과 ‘말하기’

구술 치유에서 구술자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 구술자는 구술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의 대강을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한다.¹³⁾

10) 김종균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정치적 문제 혹은 국가폭력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구술의 위험성을 지적한바 있으며, 이를 통해 트라우마 치유에서 대상자의 ‘안전의 확립’을 강조하는 이유를 밝혔다(김종균, 2013: 114).

11)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구조화하고 그 경험을 이해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말하고 이해되어 짐으로써 치유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호연·엄찬호, 2010: 369-370).

12) 김종균은 다수의 구술조사 연구를 수행하며 ‘구술’의 치유적 효과에 주목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 방법으로서 ‘구술 치유’를 제안하였다(김종균, 2011, 2013, 2015, 2016, 2017).

중요한 사건이나 시간, 경험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맥락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김예선, 2009: 297). 역사적 사건의 생존자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 형태로 기억하고 구술로 말할 수 있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지점에서 진단과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

1) 살아온 삶에 대한 ‘기억’ 속에 담긴 상처

역사적 사건의 생존자들이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못하다는 것은 어떠한 경험들이 서사의 맥락 속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술 치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 혹은 이야기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경험을 역사적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본다. 특정 부분이 논리적이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양상을 말한다.¹⁴⁾ 논리적 연결이 끊겨 있으며, 맥락화 안에 벗어난 구술 혹은 차마 하나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지 못한 기억들은 결국 구술자 내면에 이해 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히지 못한 상처의 단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사의 논리에 부합하며 전후 맥락을 갖춘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생애사를 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구술 치유에서 상처를 추적하는 첫 번째 단서가 된다.

13) 심리학적으로 기억 혹은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일련의 선택과정을 거치는 재구성 행위(reconstructive behavior)이다(Parkin, A. 저·이영애·박희정 역, 2001: 20-26).

14) 허먼은 트라우마 치유 과정에서 생존자가 이야기하는 외상 기억이 언어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고 감정이 묻어 있지 않은 전(前)이야기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주디스 허먼 저·최현정 역, 2014: 292).

2) ‘말하기’ 를 통해 서사로 재구성되는 기억

나의 삶에 대한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것, 구술 치유에서는 구술자가 자신의 삶을 나뭇의 맥락 속에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치유의 시작으로 본다. ‘말하기’를 위한 생애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해의 범위 밖에 있던 사건이나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구술자에게 영향을 미치던 트라우마가 그 삶의 서사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디스 허먼이 말하는 상처에 대한 애도의 기능을 한다(주디스 허먼 저·최현정 역, 2014: 313-315). 역사적 사건의 피해 생존자는 구술을 통해 상처의 경험을 기억하고,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상처에 대한 통찰을 다시 할 수 있다. 그 상처가 자신 개인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단의 시간을 살아온 우리 모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안에 살아남은 자신이 피해 받은 약자에서 외상을 이겨낸 생존자임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애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구술자는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미래를 기획할 수 있게 된다.¹⁵⁾

2. 말하는 사람과 드는 사람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

물론 이러한 주체적 말하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

15) 알래스테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hintyre)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탐구하는 삶’으로 서사적 자아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이야기로서의 역사(narrative history)’로 개인의 삶에 통일성을 부여하며 자아(selfhood)의 정체성이 확인되며, 그것이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의 형태로 자신과 타자에게 소통될 수 있을 때 ‘인간존재는 자기가 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이다(방진하, 2014: 71-99).

한 이야기를 청해 듣는 구술 조사자의 기능에 달려 있다. 대부분 그것은 구술자와의 정서적 공감대에서 비롯된다.

상담치료 등의 트라우마 치유 과정에서 구술자가 안전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의 확립을 첫 번째 단계로 설정하듯, 구술 치유에서도 역사적 트라우마의 경험을 말하기 어려운 구술자가 주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구술의 첫 번째 조건으로 삼는다. 구술 치유에서 안전한 상황의 조성은 구술자와 조사자 사이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관계는 여타 구술을 활용한 연구 방법론에서 언급하는 라포(rapport)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술 치유에서는 구술자가 지닌 상처의 보호와 위안을 위한 말하기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일반적 신뢰관계인 라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닌다. 그것의 두드러진 특징은 ‘경청의 자세’와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통찰력’에 기반한 조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 ‘질문하기’ 가 아닌 ‘듣기’ 의 인터뷰 방식

정서적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조사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경청’의 자세이다. 구술조사 시 조사자는 때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구술의 방향성을 조정하거나 원하는 답변만을 위해 설정된 질문을 던지는 등의 형태로 구술 상황에 개입한다. 그러나 특정 목적을 위한 ‘약탈적 인터뷰’¹⁶⁾는 구술자의 주체적 말하기가 불가능하게 만들며, 자연스럽게 구술 내용은 조사자가 원하는 범위로 제한된다. 이처럼 자유롭지 못한 구술 상황은 구술자의 안정감을 감소시키

16) 구술자가 살아온 삶의 맥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구술조사를 수행 하는 것을 말한다(이나영, 2012: 198).

며 정서적 공감대 형성과 구술자의 삶이 서사화되는 과정에 장애물이 된다.

구술자 : 여기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북한도 대학졸업생이 작을 때는 졸업하기 바쁘게 지방까지 내려오면 위에서, 평양에서 다 배치됐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도 다 살았지요. 근데... 저 물어볼거만 물어보십시오 내 자꾸 탄소리해서.

조사자 : 괜찮습니다. 제가 꼭 뭘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 답을 요구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북한에서 나서부터 여기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려는 거예요.

구술자 : 그런 거 들어서 뭐합니까?

조사자 : 하하, 그럼 여쭙볼게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 탈북민A 구술조사 내용 중¹⁷⁾ -

사례 1의 구술 치유 과정에서 구술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술자는 한국 입국과 관리 과정에서 상담이나 인터뷰를 자주 경험했다고 하였고, 구술 과정에서는 자신이 자꾸 ‘탄소리’를 한다며 구술자에게 질문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구술자는 약탈적 인터뷰를 이미 경험하였으며 구술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술 치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자가 사례에서와 같이 구술자에게 구술의 내용에 제약이 없음을 거듭 알리며 자연스럽게 구술자의 삶 전반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구술조사 상황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이 구술자의 침묵이다. 침묵은 구술자가 기억을 재구성을 하는 과정이 길어질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정서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술의 서사적 재구성 과정이라는 점과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이 발현되

17) 조사자: 남경우, 조사일시: 2016. 10. 30. 조사장소: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구술자: A(실명 비공개, 1965년생, 여, 2015년 입국)

는 것이라는 점에서 침묵은 매우 중요한 몸짓언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강요하면 자칫 트라우마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¹⁸⁾ 그렇기 때문에 조사자는 구술자의 침묵에도 개입해서는 안 되며, 구술자가 스스로 침묵을 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구술 치유에서는 이처럼 조사자에게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는 ‘듣는 자의 입장’을 강조한다.¹⁹⁾

2)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통찰력에 기반한 인터뷰 방식

역사적 트라우마의 구술 치유 과정에서 조사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경청’의 자세뿐만이 아니다. 한반도의 역사적 흐름은 물론, 그 안에서 벌어진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에 바탕을 둔 통찰적 시각이 필요하다.

- 구술자 : 아닙니다. 아들 먼저 있었는데 네 살에 죽었습니다. 뭐야 그거, 의사가 주사 바늘 빼면서 이래저래 부작용으로 죽었습니다. 96년도일겁니다. 이제는 잘 생각도 안 납니다.
- 조사자 : 한참 고난의 행군 하고 있을 때네요.
- 구술자 : 맞습니다. 사람이 막 굶어 쓰러지는데 내 새끼가 그거 가

-
- 18) 외상사건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강요받았던 환자의 악화 사례에 대한 보고는 많다.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한 외상기억의 반복에 의한 결과다. 허먼은 외상환자들이 자신의 외상 경험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려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이야기하기를 통해 카타르시스적인 회복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회복은 환상임을 말하였다(주디스 허먼 저, 최현정 역, 2014: 287-290).
- 19) 구술사 연구에서도 조사자의 개입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술조사 전략으로 자연스러운 행동, 구술자에게 흥미를 가지면서도 진지한 태도, 구술자의 침묵을 깨지 않기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구술자의 삶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이루어진 후에는 비평적 질문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구술 치유의 구술조사 방법과 차이를 지닌다. 구술 치유에서의 질문은 가청 불가능 사항에 대한 질문 혹은 내용의 이해를 위한 질문의 범위로 제한한다(윤택림·함한희, 2006: 102-104).

지고 들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병원 갔는데 이제 해열제 놓는 게 다른 주사를 잘못 놔 가지고서리 주사 빼면서 부작용으로 죽었지요. 감기 걸린 게 열이 이제 39도6부기 때문에 열을 좀 약간 내리게 해야 밤에 좀 편히 잘 거 같아서... 에이 근데 뭐 그때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슬하게 쓰러지는데 그거 갖다가 어쩔 것도 없고 그때 그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안 여겨질 텐데 뭐. 어쩔 수 없지요. 내가 별 얘기를 다합니다.

- 탈북민A 구술조사 내용 중 -

구술자가 아이를 잃은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망연도를 확인한 조사자는 당시의 북한사회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있었음을 알아차린다. 조사자의 인지는 구술자의 구술을 더욱 확장시킨다. 애초에 구술자는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가, 조사자가 그때의 상황을 잘 이해하자 더 나아가 당시 북한사회의 환경을 털어 놓는다. 그렇게 구술 증언의 의미가 심화된다. “내가 별 얘기를 다한다”는 구술자의 감정 섞인 발언에서도 그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하던 고난의 행군시기 상황에 대한 공감 속에서, 자녀의 죽음은 재맥락화되고 이후 구술자의 탈북 동기 등과 연결되어 확장된 구술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구술자의 변화와 역사적 트라우마를 둘러싼 조사자와 구술자의 정서적 공감대의 형성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한 조사자의 통찰적 역량과 경청의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구술 상황에서 안전확보의 기반이 된다.²⁰⁾

3. 탈북민의 ‘주체적 말하기’ 단계

조사자와 역사적 상처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구술

20) 이때 구술자의 신변 정보에 대한 공개 동의 여부 확인 및 비동의 시 철저한 비밀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상황에서의 안전확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구술자의 구술 범위가 넓어지고 그 내용이 다양해진다. 구술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상처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구술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는 2~3차례(최소 10시간 이상) 구술 인터뷰가 이뤄지고 난 후 발견되는 ‘주체적 말하기’의 실례이다. 아래 구술자료의 탈북민은 한국 거주 기간이 길고, 탈북민 존재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지닌 여성이어서 여타 사례에 비하여 적극적인 발언이 가능하였다. 분단구조 속 위축된 소수자로서가 아닌, 역사적 트라우마의 생존자로서 자신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말하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술자 : “야 우리가 탈북자들을 얹혀 놓고 좀 이거 뭐야 이성에 대한 관계 같은 거 좀 정절에 관한 개념에 같을 걸 좀 배워주고 심어줘야 되겠어. (중략) 너무나 지금 북한 여자들이 그걸 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수님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앉아서리 단 바람에 우리 교수님 보고 그랬다고.

“교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디다가 그 정절에 관한 그런 개념을 강요하자고 하는 가고. 그 모에 띄어봐라. 그 모에 띄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나. 너무 정절에 관한, 그게 사치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사치 판에, 어? 자기도 똑같은 상황에 취해보지 않은 사람이 나서서 그 입장에 당했던 여자들 앞에서 그런 말 할 때 그 말이 마음에 들어가겠냐? 귀에 들어가겠냐? 그건 오히려 그 여자들을 욕되게 하는 거다.”

(중략) 내 말이 맞지요? 내가 막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데.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내 한국 사람들보고 다 그 말 해요.

- 탈북민 한00 구술조사 내용 중21) -

위의 구술자는 모 신학대학의 교수와 함께 살며 집안일을 관리하고 있다. 교수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운 상태였음에도 탈북 여성에게 정절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수의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술자가 믿고 따르는 교수의 의견은 탈북민에 대한 배타적 시선의 대표적 예시라 할 수 있다. 구술자는 한국 주민들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음을 말하며 한국 사회의 배타적 시선에 대한 거부감과 반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술자 : 뭐 중국에는 맨- 홀애비야. 맨 장가 못 간 사람 많아 그래요. 여자가 그림이니까. 여자는 금값이란 말이야, 그 땅에는. 그 집 사람이 보니까 아 여자 꽤 팔아 먹을만하거든. (중략) 그 마을에 총각으로 늙은, 지금 사는 남자 그걸 데려왔단 말이야. 그래 데려와서 이 거간꾼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중국 사람들 그렇게 양심은 없지 않으니까 중국 돈 1,000원을 줬더라고. 하룻밤 재우고 소개하는 사람이 500원을 때. 북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해볼 것이 없어. 고저 어디 가서, 경찰한테 가서 고발만 안 당하면 오직 감사하니까.

(중략) 햇빛보 있어요. 그걸 뚝 떼더니 그걸 집 가운데에다가, 저기에다가 갖다가 집 말두지에다 박고 하나 이 말두지에다 박고, 집 가운데 천이 하나 쳐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자기 색시하고 그 신랑하고는 아룻방에 눕고, 이 사돈 엄마하고 북한에 신랑, 천 하나 사이 놓고 둘이 잤단 말이야. 첫날밤을 지냈단 말야, 여기에서. 기 가슴이 튀이겠나 봐라, 이게.

(중략) 막 울더라고. 내 앞에서 그래. 내가 그 때 막 같이야, 이걸 어디 UN에 가서 말해야 되니? 어디가 말해야 되니? 이거는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는 나라는 이렇게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나, 우리는.

- 탈북민 한00 구술조사 내용 중 -

- 21) 조사자: 김종균, 김예선, 이원영, 조사일시: 2010. 4. 9. 조사장소: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구술자: 한영숙(가명, 1951년생, 여)

북한 부부가 탈북하여 남매로 위장하고 거처를 구하다가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게 되었는데, 탈북 여성은 중국 남성과 첫날밤을 지내야 했고, 한 방에서 천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북한 남편이 숨죽이고 자는 척을 해야 했다는 내용의 구술이다. 구술자는 이것이 중국에서 만난 탈북 여성의 사연임을 밝혔다. 자신이 겪은 경험 외에 타인의 경험을 이야기할 정도로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탈북 과정에서 겪는 탈북민의 고통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여성의 발언은 탈북여성의 정조관념을 비하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고발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그녀가 경험한 북한 부부의 탈북 과정과 인신매매 사연은 그녀의 증언에 담긴 문제의식을 가차 있게 하는 역사적 증언이자, 다수에게 탈북민의 고통에 공감하게 하는 하나의 스토리로 기능한다. 한국사회의 고정관념에 대항하는 탈북민의 역사로서, 탈북과정에서 한국살이에까지 이어지는 탈북 트라우마의 현재성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증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주체적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4. 통합서사 발굴과 사회적 확산

1) 고발-화해-해원-통합의 가치 발굴

구술조사 후에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유의미한 구술자료를 선별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지향하는 이야기로서 발굴되고 수집되어야 한다. 그 선별 기준은 아래와 같은 ‘통합서사’의 가치에 준할 수 있다.

<그림 1> 통합서사의 내용과 기능

통합서사	내용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 깔린 비인간성을 고발하면서도 분노와 원한보다는 온정과 화해로 이끌어 내는 말하기 방식과 그 내용"
	기능	분단체제 속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이념적 적대 정서에서 기인한 분단서사를 완화시키는 일련의 인간 활동으로 사회를 통합시키는 장치

통합서사라는 큰 틀 안에서 구술 자료는 몇 가지 성격을 기준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가해자 혹은 가해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술하는 ‘고발’, 가해자 혹은 가해 상황에 대한 정서적 이해인 ‘동정’,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대적 구도를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시각을 갖는 ‘화해’가 그것이다. 각 성격을 지닌 이야기의 서사적 특성은 고발의 성격을 지녔을 경우 ‘해원의 서사’, 동정의 성격을 지녔을 경우 ‘포용의 서사’, 화해의 성격을 지녔을 경우 ‘통합의 서사’로 도출된다(김중균, 2015: 217).

예를 들어 탈북 과정에서의 고통이나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은 차별과 배제의 경험이 주를 이루는 구술은 해원의 서사로 볼 수 있다. 자신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한국 주민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이해하는 구술은 포용의 서사라 할 수 있으며, 탈북이라는 사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 주민과의 화합과 상생을 말하는 구술은 통합의 서사로 볼 수 있다.

한 명의 구술자에게서 구술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구술에는 다양한 서사적 특성이 공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각 성격은 트라우마를 유발한 경험에 대한 이해, 즉 서사적 맥락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기에 치유의 증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²²⁾ 대체로 해원의 서사, 포용의 서사, 통합의 서사 순으로 맥락화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치유를 위한 사회적 담론화

구술 치유는 구술자의 삶을 재구성해 서사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구술 치유의 최종 적인 목표는 구술 증언의 ‘사회적 담론화’에 있다. 치유 과정을 역사적 트라우마의 생존자를 위무(慰撫)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유의 대상을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로 확장하여 트라우마가 재경험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술 치유를 통해 치유적 증후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구술자와 조사자가 마주한 구술조사 상황에서만 일어난다면 이는 단순한 낫두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구술 치유를 통해 탈북민이 스스로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과 정도가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탈북민에게 지속적으로 탈북 트라우마를 남기고 강화하는 사회적 차별과 경계, 배제의 현실은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술 치유는 구술자 개인의 치유가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시선의 완화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이 변화해야 탈북 트라우마를 포함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완화되고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술 치유에서 말하는 ‘사회적 담론화’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일부의 것이 아니라 사회 모두의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반도의 역사와 여기에서 비롯된 역사적 사건이 낳은 고통을 ‘공통의 문제’이자 ‘공통의 경험’으로 인정하게 하는 과정이다.²³⁾ 역사적 트라우마

22) 구술 치유를 제안한 김종균은 구술자료의 공유를 통한 타인의 동병상련이 구술자에게 위안을 줄 수 있으며 동일한 트라우마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담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라고 보았다(김종균, 2013: 115).

23) 김명희는 친밀권의 양의성을 통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경계하고,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 친밀권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렇게 친밀성에 기반한 공공권을 ‘친밀적 공공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서 역사적 상처들을 ‘공통의 문제’와 ‘공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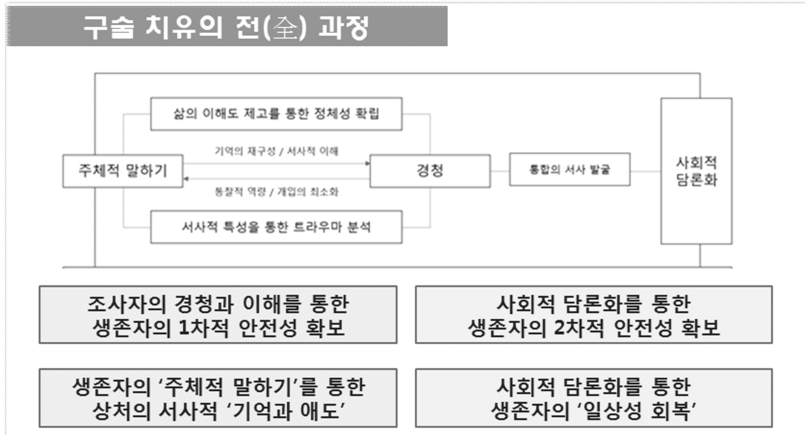
의 고통을 알리고 사회에 유지되고 있는 남과 북에 대한 적대적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재료는 바로 구술자들의 구술 증언이다. 그 중에서도 담론화의 대상으로 ‘통합서사’에 주목한다.²⁴⁾ 화해의 성격을 지닌 통합의 서사는 적대적인 시선, 배타적인 시선을 극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서사는 서사적 맥락화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사회에 공개되었을 때 더욱 쉽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에 바탕을 둔 곡진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콘텐츠로 개발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²⁵⁾

정리하면, 구술 치유의 사회적 담론화 과정은 ‘역사적 트라우마 생존자의 주체적 말하기 - 통합서사적 구술 발굴 - 통합서사의 DB화 - 통일인문콘텐츠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술 치유의 전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경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공통적인 관점에 기반을 둔 구성원들의 관계는 공공 기억을 통한 역사연대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이것이 사회적 치유책으로서의 의미도 지님을 주장하였다 (김명희, 2016: 387-388).

- 24) 김종균은 분단 트라우마의 표출 양상이 ‘분단서사’이며 적대성을 내재하고 있고 사회적 갈등을 추동하는 분단사회의 특징적 삶의 방식이라고 보았다. 반면 ‘통합서사’는 이와 같은 분단서사를 극복하고 사회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서사적 장치라 말한다(김종균, 2015, 266-267).
- 25)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은 탈북민 구술자료(김종균·정진아, 2012.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 서울: 박이정; 김종균, 2015. 『탈북 청소년의 한국살이 이야기』. 서울: 경진출판. 등)를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출간하고 있으며 역사적 트라우마의 콘텐츠화(웹툰 <히스토리>, 아카이브 서비스 <한국전쟁체험담 대국민 서비스>, <통일문화콘텐츠>)를 시도하고 있다. 탈북 트라우마를 포함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사회적 담론화하는 활동이다.

<그림 2> 구술 치유의 과정



주디스 허먼은 트라우마의 치료 중 외상기억을 재구성하고 외상으로 인한 상실을 애도하는 과정을 ‘기억과 애도’라 말한다(주디스 허먼 저·최현정 역, 2014: 313-315). 개인적 차원의 트라우마와는 다르게 역사적 트라우마는 역사적이며 집단적인 문제다. 때문에 구술자들의 구술이 사회적 담론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을 얻고 다수의 지지를 받아 공공의 영역에서 인정될 때에 역사적 트라우마의 진정한 기억과 애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허먼이 말한 트라우마의 마지막 단계는 ‘일상의 연결 복구’다(주디스 허먼 저·최현정 역, 2014: 327). 상처받은 자는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였으며, 변화되지 않은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한 그들의 트라우마는 반복재경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통합서사의 사회적 담론화는 상처받은 이들의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치유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탈북민이 탈북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왔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맞는 치유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탈북민의 탈북 트라우마 치유는 요원한 문제가 된다. 그러한 점에서 탈북민 생애의 ‘기억과 말하기’에 주목하는 구술 치유는 남북 적대적 관계의 특수성 및 변화하고 있는 탈북 트라우마 특성에 적합한 치유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술 치유는 한국사회 내에 그들의 ‘주체적 말하기’를 경청하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공공의 역사로 기억하게 하는 사회적 담론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건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이 글은 탈북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각성을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삼고, 그 치유 방안에 대한 인문학적 모색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탈북민 치유책을 점검하였고, 그에 한계점을 논하며 탈북민의 실제 아픔에 접근할 수 있는 ‘탈북 트라우마’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간 탈북민 치유 지원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심리상담 기법이나 심리안정 목적의 활동들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러한 치유책들은 현대 정신의학의 학문 틀로 규정할 수 없는 탈북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본고는 난민/이주민과는 구별되는 탈북민의 특수성으로 ‘탈북’의 의미로 가중되는 문제를 포함한 개념의 탈북 트라우마를 논하고, 그들에 대한 치

유의 지원은 탈북 트라우마에 초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 트라우마는 ‘북한에서의 삶 - 탈북 과정 - 한국살이의 고충’을 전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개념으로서, 그간 학적으로 제안되어 왔던 탈북민의 상처를 두루 포괄한다. 이러한 탈북민의 살아온 삶의 경로에 따른 범주의 한정은 이들이 ‘탈북’한 사람으로 체제 반대편의 남한사회에서 살아온 고충도 포함한다는 면에서 특장을 지닌다. 본고는 그 예로써 민족적 동일성 욕망의 좌절과 존재를 부정당하는 문제, 고향땅과의 단절로 발생하는 죄의식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주체적 말하기’는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였다. 다른 트라우마와 달리, 탈북민의 상처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분단 역사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지속된 역사적이고 집단적 성격을 아픔인 역사적 트라우마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탈북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주체적 말하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술 치유’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통찰한 구술조사자의 자세, ‘질문하기’보다 ‘듣기’ 방식으로 진행하며 그들의 삶의 경로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듣는 구술조사 현장에 대해서 논하였다. 또한 구술의 ‘치유적 효과’는 구술행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발언이 남한사회 중심부로 향해지는 소통의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분단과 분열의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통합서사적 발언들을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이들의 증언에 다수가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삶이 공공의 기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들 증언의 사회적 확산에 무게를 두는 구술 치유의 방법은 그간 트라우마 발설의 치유적 효과를 이야기해온 선행 연구들과의 뚜렷한 차별점에 해당한다. 본고가 주장하는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인문학적 치

유책은 이들의 상처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공공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과정까지라고 할 수 있다.

■ 접수: 10월 10일 ■ 심사: 11월 2일 ■ 채택: 11월 8일

참 고 문 헌

- 강미정. 2014.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경험담에 나타난 트라우마 분석." 『문학치료연구』 제30집, 413-437.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012. 『코리아의 역사적 트라우마』. 서울: 선인.
- 김명희. 2016.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재구성 장치로서 친밀적 공공권의 가능성." 『민주주의와 인권』 16권 2호, 387-388.
- 김성민. 2010. "분단과 통일, 그리고 한국의 인문학." 『대동철학』 제53집, 451-470.
- 김예선. 2009. "'살아온 이야기'의 담화 전략 - 삶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 제19집, 297.
- 김중곤. 2014. "남북분단 구조를 통해 바라본 '탈북 트라우마'." 『문학치료연구』 제33집, 205-228.
- 김중곤. 2011. "구술을 통해 본 분단 트라우마의 실체." 『통일인문학』 제51집, 37-65.
- 김중곤. 2013. "구술생애담 담론화를 통한 구술 치유 방안-『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26집, 107-134.
- 김중곤. 2015. "통합서사의 개념과 통합을 위한 문화사적 장치." 『통일인문학』 제61집, 263-294.
- 김중곤. 2015. 『탈북청소년의 한국살이 이야기』. 서울: 경진출판.
- 김중곤. 2016. "<강도몽유록>을 통한 고통의 연대와 통합서사의 사회적 담론화 모형." 『문학치료연구』 제40집, 195-223.
- 김중곤. 2017. "탈북청소년 구술에 나타난 어머니의 해체와 자기치유적 말하기." 『문학치료연구』 제44집, 115-146.
- 김중곤·정진아. 2012. "탈북자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탈북 트라우마의 현재적 양상." 『코리아의 역사적 트라우마』. 서울: 선인.
- 김중곤·정진아. 2012.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 서울: 박이정.
- 김지애. 2016.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 2006.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trauma) 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호연·엄찬호. 2010. "구술사를 활용한 인문치료의 모색." 『인문과학연구』 제24집, 369-370.

- 김화순. 2017.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35-264.
- 나지영. 2011.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 본 탈북 청소년의 자기서사 진단 사례 연구." 『통일인문학』 제52집, 71-112.
- _____. 2012. "설화 <내 복에 산다>의 재창작을 통한 탈북 청소년의 문해력 신장 사례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23집, 151-176.
- 남북하나재단. 2017.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박상옥·최늘샘. 2011.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교육요구-인문학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14집 2호, 107-135.
- 박영균. 2015. "'중복'이라는 기표가 생산하는 증오의 정치학." 『진보평론』 제63호, 5.
- 박재인. 2013. "탈북여성B의 구비설화에 대한 이해 방식과 자기서사." 『고전문학과 교육』 제26집, 291-324.
- _____. 2014. "이주와 성공의 고전서사를 활용한 탈북민 대상 문학치료 사례 연구." 『문학치료연구』 제41집, 335-370.
- _____. 2014. "탈북여성의 부모밀치기서사 성향과 죄의식." 『구비문학연구』 제39집, 73-114.
- _____. 2015. "탈북과 적응이 남긴 문제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적응에 성공한 탈북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교육』 제30집, 381-419.
- _____. 2017. "'고향으로서의 북녘, 통일을 위한 정서적 유대 공간으로의 가능성', 『통일인문학』 제71집, 39-74.
- 방진하. 2014. "매킨타이어 '서사적 자아'(narrative self) 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 『교육철학연구』 제36집 2권, 71-99.
- 성정현. 2014.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권 5호, 117-131.
- 안현의. 2011. "단순 및 복합 외상 유형에 따른 PTSD의 증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제30집 3호, 869-887.
- 우종민. 2014.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서비스 및 연구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서울: 국립서울병원.
- 유혜란. 2014. "탈북민을 통하여 본 '북한체제트라우마(NKST) 불안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권 1호, 120.
- 윤완준. 2016. "탈북민 10명 중 6명 북한으로 송금한 경험 있다." 『동아일보』

(2016/03/02).

- 윤택림·함한희, 2006. 『새로운 역사 쓰기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나영, 2012. "과정'으로서의 구술사, 긴장과 도전의 여정." 『한국여성학』 제28집 3권, 198.
- 이병수, 2011. "분단 트라우마의 유형과 치유방향." 『통일인문학』 제52집, 51-56.
- 정성미, 2015.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표현과 치유-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9집 1호, 121-150.
- 조정아 외, 2014. 『탈북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통일교육원.
- 주디스 허먼 저·최현정 역, 2014.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파주: 열린책들.
- 통일부, 2017.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정착지원과.
-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7. 『2017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 서울: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황서목·원효현, 2017.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한 하나원 교육과 남한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터뷰 내용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9집 4호, 186.
- Parkin, A. 저·이영애·박희경 역, 2001. 『기억연구의 실제와 응용』. 서울: 시그마프레스.

ABSTRACT

Possibility of the Humanistic Healing Plan
For North Korean
-defection Trauma Focused on Healing
Effect of Oral Life Story-

Kim, Jong-Kun

(HK Professor, Konkuk University)

Park, Jai-In

(HK Research Professor, Konkuk University)

Nam, Kyoung-Woo

(HK Researcher, Konkuk University)

Kwack, Ah-Ram

(HK Researcher, Konkuk University)

Feng Ying dun

(HK Researcher, Konkuk University)

This article has made the issue of mental health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humanistic methodology was applied as the method of healing. Until now, the North Korean defectors remedies have relied solely on general psychological counseling techniques. There was a lack of proper measures to take into account the wound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social environment. Therefore, this article newly defines the concept of North Korean-defection trauma

and proposes a focus on humanistic healing.

The North Korean-defection trauma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the life in North Korea, the process of defecting, and the grievance of life in South Korea. And specific problems experienced as defectors. Such is the sense of a group of desire for national identity, denial of existence, guilt for the North.

The cure for this is to establish a communicative pathway that can be talked about. In this respect, it is important that Oral Life Story dictionaries spread their integrated narrative values socially. The methodology focuses on social diffusion of oral testimony. Humanitarian healing measures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at These hurts are up to the process of becoming a public history that we should not forget.

Key word : Mental health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defection Trauma, Division Trauma, Healing Effect of Oral Life Story, Oral Life Story of North Korean